

2024년 04월 30일 (화) - Signal Evening

만든 날짜: 2024-04-30 오후 3:27

수정한 날짜: 2024-04-30 오후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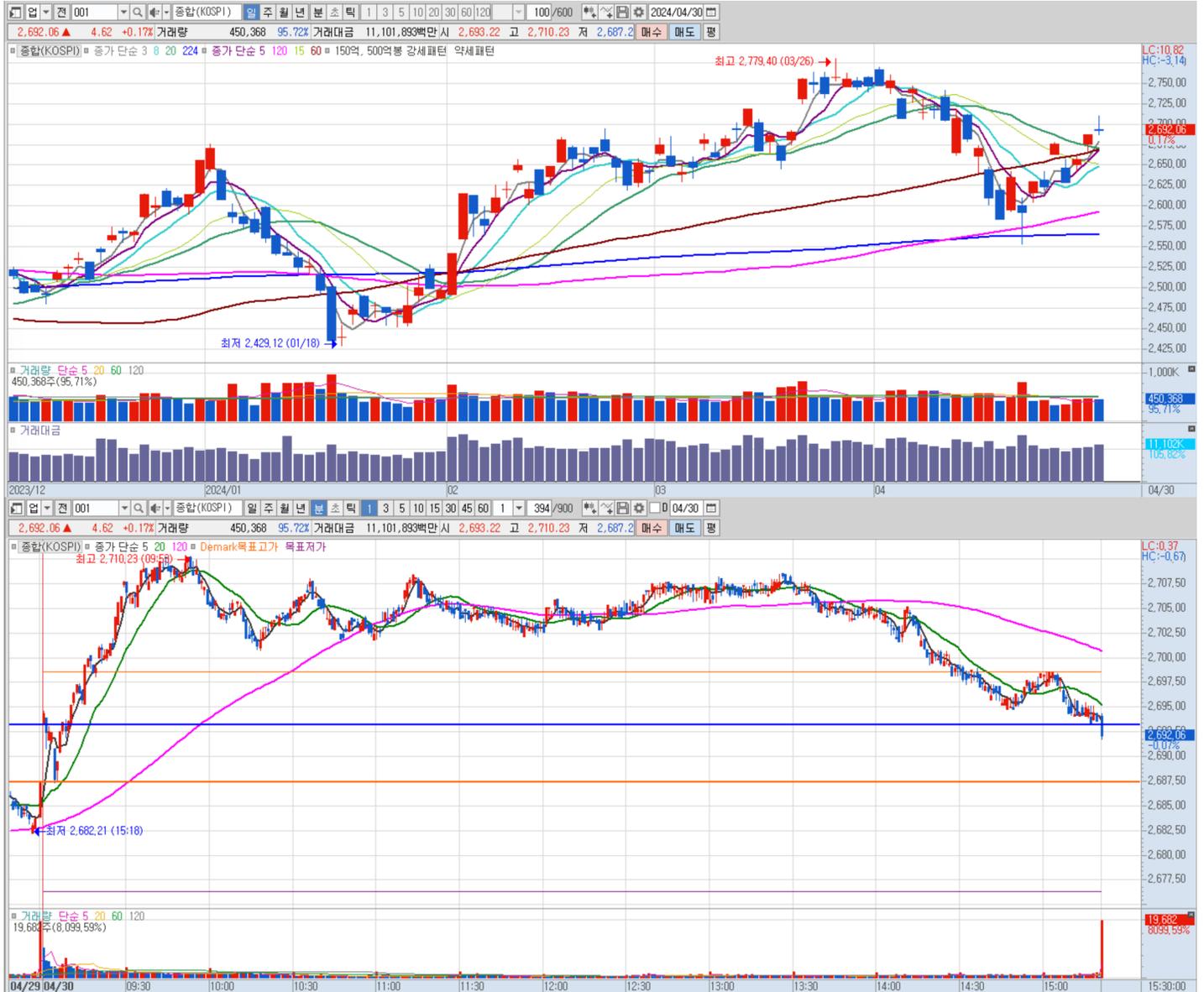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당일 새벽 제공된 'Signal Report'에서 시장에 강하게 부각된 요소를 복습하는 콘텐츠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저녁에 제공됩니다.

2024년 04월 30일 (화) - Signal Evening

▶ 코스피 지수 2692.06 (+0.17%)



▶코스닥 지수 868.93 (-0.09%)



[04월 30일 (화)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 화장품 >

●아모레퍼시픽 (+8.72%)(997K), 아모레G (+4.02%)(772K) / 토니모리 (+12.86%)(3035K) / 한국화장품 (+9.63%)(1354K) / 클리오 (+8.53%)(433K) / 본느 (+7.85%)(5476K) / 선진뷰티사이언스 (+7.11%)(279K)

['젊어진' 아모레퍼시픽, 중서 접은 뷰티 날개 美·日서 폼다](#)

[\[특징주\] 아모레퍼시픽, 기대치 웃돈 1분기 실적에 1년 내 최고가](#)

["중국인 물려온다" 웃음꽃 핀 제주도...호텔방 싹 다 동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48만8365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1월(87만 8343명), 2월(102만7813명)까지 합하면 석 달간 누적 339만4521명이 한국을 찾았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1분기의 88.6%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1만5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방한 중국인이 201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특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를 선호하는 중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숙박업계도 간만의 특수에 들떠 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에 있는 그랜드하얏트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만1890실이 모두 예약돼 개장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뽀아 (+30.00%)(12962K)

[\(23.09.15\)색조화장품 '뽀아', 스펙 합병 결의..코스닥 우회상장](#)

빠아는 2004년 설립된 화장품 전문 회사로, 주로 색조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색조화장품 가운데 립 틴트 등 립(Lip) 메이크업 제품과 아이라이너 등 아이(Eye) 메이크업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매출은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를 비롯하여,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버티컬채널과 올리브영 등 H&B스토어와 면세점 등을 통해 일으키고 있다. 해외 매출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

●마녀공장 (+18.71%)(12953K)

[\(24.04.24\)마녀공장, 미국 최대규모 뷰티 멀티숍 '얼타' 오프라인 입점](#)
[\(23.06.08\)『e종목』 '올해 최고 경쟁률' 마녀공장, 마지막 '따상' 주인공 됐다](#)

마녀공장은 '국민 클렌징'이라 불리는 '퓨어 클렌징 오일'로 잘 알려진 클린 뷰티 컨셉의 종합 화장품 기업이다. 자연주의 유래의 좋은 성분을 기반으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인 '마녀공장(ma:nyo)'을 중심으로 △비건라이프 토탈케어 브랜드 '아워 비건' △향 바디 케어 특화 브랜드 '바닐라 뷰티크' △비건 색조 브랜드 '노 머시' 총 4개의 브랜드를 영위 중이다. 마녀공장의 제품들은 지난해 기준 65개국에 진출해 전세계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마녀공장은 지난해 매출액 1018억원, 영업이익 24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의 55.3%인 563억원은 해외 매출로 이중 가장 큰 매출처인 일본에서 427억원 기록했다. 이는 전체 해외 매출액의 75.8% 달하는 수치다. 이미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일본을 넘어 중국·유럽·미국·인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이다

●제이투케이바이오 (+12.38%)(1758K)

[\(24.03.20\)제주에 지사 둔 제이투케이바이오, 코스닥 상장](#)

제이투케이바이오는 생활화학과 화장품 원료 전문기업이다. 지난 2022년 7월 제주TP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에 제주지사(본사 충북 청주시)를 설립하고,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과 연구개발장비 등을 활용해 피부 효능이 우수한 메타-엑소좀(METAexosome) 소재 등 화장품 소재 개발연구를 진행 중이다.

●뷰티스킨 (+10.32%)(3861K)

[\(23.07.17\)뷰티스킨, 청약 경쟁률 2316.13대 1... 청약 증거금 3조원 넘게 몰려](#)

뷰티스킨은 화장품 브랜드, 제조, 유통 사업을 내재화한 종합 뷰티 전문기업이다. 중국 진출 1세대 화장품 기업으로 국내 유수의 브랜드를 중국 및 아시아 권역에 유통하면서 K-뷰티 열풍에 일조했다. 뷰티스킨의 주요 브랜드로는 더마코스메틱 컨셉인 원진브랜드와 비건 및 자연주의 컨셉인 유리드 브랜드 등이 있다. 각 사업 부문별 고른 매출 비중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뷰티스킨은 유통 인프라 확보에 성공해 2019년 글로벌 대형 리테일 TJX의 공식 벤더로 지정됐다.

< 에너지 >

●고려제강 (+17.27%)(2960K)

[\[종목이슈\] 고려제강, 美 60조원 인프라 투자 수혜... 송전·통신·교통 다 품었다](#)

고려제강은 와이어 로프(Wire Rope), 강연선, 각종 선재 등 자동차, 교량, 에너지, 건축,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특수선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고려제강은 지난 1999년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고 현재 3곳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수출 제품은 현지 생산과 여타 생산 지역 공급 물량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전력·통신 인프라를 위한 기술 확보도 진행형이다. 고려제강 기술연구소는 △현수교에 사용되는 메인 케이블용 고강도 A.SW(Air Spining Wire) △사장교용 Unbonded PC Strand △고강도 극태물 와이프로프 △고압송전선 보강용 Invar Wire △광통신 케이블 보강용 저수소강선 △핵융합로용 초전도선재 등을 개발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LS에코에너지 (+11.60%)(19281K) / KBI메탈 (+14.41%)(55687K)

["비철금속 가격,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요 광물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4주 구리 가격은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 및 주요국 생산 차질 우려로 상승했다. 톤당 9,749 달러로 전주 대비 2.5% 올랐다. 세계 동 정광 공급 부족에 따른 중국의 주요 제련소들이 감산 추진 및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또한 잠비아의 전력난에 따른 광산 가동 차질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감소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세계 1위 동 생산국인 칠레의 광산 생산 증가 전망으로 상승 압력이 부분 상쇄됐다.

< BIO / 의료시 >

●카이노스메드 (+19.40%)(4309K)

[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中 1분기 매출 전년比 177% 달성"](#)

회사가 개발한 에이즈치료제 KM-023이 포함된 ACC007, ACC008의 중국 내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77%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장수 아이디가 발표한 1분기 에이즈치료제 매출은 약 67억7000만원이다. ACC007은 복합정, ACC008은 단일정으로 복용 가능한 에이즈치료제로 중국 파트너사 장수 아이디가 중국 내에서 판매 중이다. 해당 치료제들은 지난해 12월 중국 의료보험에 등재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장수 아이디는 ACC008의 경우 임상 3상에서 96주간의 바이러스를 장기간 억제하고, 기존 치료제를 복용하였던 환자들에서도 동등한 치료효과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제25회 국제에이즈학회(AIDS 2024)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된다.

●네오이뮤텍 (+12.68%)(8737K)

[\(24.04.25\)네오이뮤텍, 美ASCO에서 췌장암·대장암 임상 결과 최초 발표](#)

네오이뮤텍은 자사 후보물질 NT-17의 병용임상 및 비임상 결과에 대한 포스터 3건을 ASCO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SCO는 미국 시카고에서 5월 31일~6월 4일 열린다. NT-17은 면역세포인 T세포의 수를 늘리고 활성도를 높여주는 사이토카인 '인터류킨7'(IL-7)을 장기지속형으로 개선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이번 포스터 발표에서 네오이뮤텍은 췌장암 환자 총 48명과 현미부수체안정형(MSS) 대장암 환자 총 50명에게 NT-17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팜브롤리주맵)를 병용 투여한 결과를 최초로 발표한다. 추가로 네오이뮤텍은 췌장암과 MSS 대장암 환자의 NT-17과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한 결과에 대한 바이오 마커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네오이뮤텍은 키트루다 개발사 미국 머크(MSD)와 후속 논의를 통해 췌장암과 MSS 대장암 환자 군에 추가로 각각 24명과 25명의 환자를 추가로 모집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모세포종 동물 모델에서 지카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 백신을 NT-17과 병용 투여한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신경종양학회(SNO)에서 발표한 항암 백신과 NT-17의 강력한 항암 효과 결과에 이은 추가 데이터 발표다.

●압타바이오 (+9.66%)(704K)

[압타바이오,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 '청신호'](#)

압타바이오는 자체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AB-19'의 미국 물질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허는 러시아, 호주에도 등록됐다. 한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는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압타바이오 관계자는 "AB-19의 특허 등록은 상업화할 수 있는 물질이 됐다는 의미"라며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엠비디엑스 (+7.47%)(5848K)

[\[특징주\] 아이엠비디엑스, 임상 3상 '엔허투' HER2 저발현 효능 입증... 파트너십 체결 부각](#)

지난해 3월 아이엠비디엑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고형암 일종인 전립선암 치료제 동반 진단 파트너십 2단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엔허투가 암종을 불문한 고형암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제이엘케이 (+16.98%)(1526K)

[제이엘케이,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제이엘케이는 29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의료 컨설팅 기업 PT카인드커뮤니케이션과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이엘케이는 병원 41개, 진료소 30개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에 뇌출혈 검출(JLK-ICH), 뇌동맥류 검출(JLK-UIA) 등 의료 AI 솔루션을 납품하게 됐다. 제이엘케이는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도네시아 보건부, 실로암병원, PT카인드커뮤니케이션과 국내 의료 AI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자동차 / 이차전지 >

●슈어소프트테크 (+18.89%)(23793K)

[\(24.01.08\)슈어소프트테크, "현대차그룹 핵심 역할 수행할 것"-리서치알음](#)

문 연구원은 "슈어소프트테크는 2010년부터 현대차그룹에 차량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련 검증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청사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정화, 품질 향상을 위한 코드 오류 검정 및 테스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코드검증 솔루션 39.2%, 시스템검증 솔루션 21.7%, 모델 검증 솔루션 8.4%, 미래기술 검증솔루션 15.6%, 기타 15.2%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슈어소프트테크의 경쟁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 모델이 고객의 각종 민감 정

보,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검증 시장을 초기에 선점한 회사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콤 (+11.82%)(25489K) / 퓨런티어 (+8.07%)(1185K) / 라닉스 (+6.64%)(6748K)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6.18%)(19684K)

[테슬라, 중서 'FSD' 출시 기대감에 주가 장중 17% 급등](#)

[테슬라, 중국서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길 열린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를 통해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 모델3과 모델Y가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선 테슬라가 이번 판정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본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 데이터 규제 때문에 내놓지 않았다.

●제일엠앤에스 (+22.73%)(15321K)

[제일엠앤에스, 코스닥 상장 첫날 58% 상승... '따블' 실패](#)

[\[오늘 상장\] '믹싱 장비 세계 선두' 노리는 제일엠앤에스, 코스닥 데뷔](#)

제일엠앤에스는 지난 1981년 '제일기공'으로 창업한 이후 1986년 법인으로 전환한 국내 최초 믹싱 장비 전문기업이다.제일엠앤에스는 2차전지 분야에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에 믹싱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선 LG화학, 방산 분야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고객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동국제약, 유한양행 등은 제약 분야 고객사다.

< 삼성 / 반디플 >

●삼성전자 (+1.04%)(18785K) / 한양디지텍 (+7.42%)(1387K)

[삼성전자 반도체 다시 날다...5분기만에 흑자 1.9조\(종합\)](#)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매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을 거뒀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2.8%, 영업이익은 931.9% 늘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보다도 각각 6.1%, 133.9% 증가했다.분기 매출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70조 원대를 회복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6조 5700억 원)보다 많다.호실적 배경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DS) 부문이 적자를 탈출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조 9100억 원이다. 이는 2022년 4분기(2700억 원) 이후 5분기 만에 흑자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23조 1400억 원을 기록했다.

●코아시아 (+10.90%)(1851K)

[코아시아, 美 AI 플랫폼 기업 HPC향 AI 반도체 칩 턴키 수주](#)

코아시아가 미국 생성형 AI 반도체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과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향 생성형 AI 반도체 설계 개발 및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코아시아는 HPC향 생성형 AI SoC를 설계하고, HBM(고대역폭메모리)을 탑재하는 2.5D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4월 개발을 시작으로 삼성 파운드리 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2025년 4분기부터 웨이퍼를 양산하고 이후 반도체 칩까지 공급할 계획이다.계약 상대방은 미국 AI 스타트업으로 하이퍼스케일 컴퓨팅(Hyperscale computing)을 위한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 고객사이트 구축형 Edge AI, HPC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코아시아는 고객사의 영업비밀 요청에 따라 추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파두 (-4.83%)(887K)

[금감원 특사경, '파두 사태' 관련 SK하이닉스 압수수색](#)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SK하이닉스 본사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하고 있다.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의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를 참고인 성격으로 조사하는 차원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 확보 목적"이라며 "(이날 압수수색 나간) 다른 곳은 없다"며 이라고 설명했다.

●삼화전기 (+19.27%)(2674K), 삼화전자 (+7.97%)(5908K)

[\[특징주\] 'AI 데이터센터 수혜' 삼화전기, 52주 최고가 새로 썼다](#)

삼화전기의 'S-CAP'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서 요구하는 고신뢰성의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며 정전 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력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된다.AI 기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자 삼화전기의 주가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종목이슈\] 삼화전기,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로 주가 '고공행진'...52주 최고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폭증으로 인해 전력 효율성이 AI 서버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면서 QLC(쿼드러플 레벨 셀) 기반 고용량 eSSD(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QLC란 낸드의 기본 저장 단위인 셀 하나에 4비트(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다. 비용 대비 저장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데이터 △XPU의 사용 증가 △서버 TPO 최적화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eSSD용 S-cap의 채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삼화전기의 'S-cap'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에서 요구하는 고신뢰성의 모든 특성을 만족시키며, 정전 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전력 소비량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광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수요 강세에 따른 고용량 eSSD 채용 확대, 지난 2017~2018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 eSSD용 S-cap 시장은 AI 서버 시장 증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익시스템 (+12.45%)(3712K) / 아바코 (+3.92%)(1137K)**

선익시스템, BOE 8.6세대 OLED 증착기 낙찰

중국 내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차이나비딩에 따르면 선익시스템은 중국 BOE 8.6세대 증착장비 입찰에서 최종 낙찰됐다. 곧 정식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앞서 선익시스템은 BOE가 중국 쓰촨성에 짓는 8.6세대(2290mm×2620mm) OLED 패널 생산기지에 증착장비 공급업체로 단독 입찰,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낙찰로 총 4대의 하프컷 증착장비 중 2대분을 공급하게 됐다. 증착기는 OLED 제조 핵심 장비다. 유기물을 유리기판에 쌓아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일본 캐논토키가 독점해왔다. 이번에 선익시스템이 낙찰되면서 국내 장비 업체가 제조한 증착기가 처음으로 8.6세대 양산라인에 채택됐다. 다른 국내 장비업체인 아바코도 진공증착 물류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 OLED 증착 과정에서 불순물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기판을 이송하는 장비다.

< **개별주** >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29.79%)(494K)**

[특징주]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7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상

앞서 전날 장 마감 후 회사는 7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채 발행 대상자는 줌웨 홍콩 에너지(Zoomwe Hong Kong Energy Technology Co., Ltd)(220억원), CNGR Hong Kong Hongchuang New Energy Co., Limited(140억원) 등이다. 줌웨 홍콩 에너지는 중국 최대 전구체 기업 CNGR의 자회사다. 이날 회사는 75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스맥 (+15.50%)(5884K)**

(23.12.15)스맥, 자동차연구원 폐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로 최초 선정

(20.05.21)스맥, 기계 넘어 ICT 전문 기업으로 '우뚛'... "무선통신·AMI 사업 확장 목표"

(23.11.14)특징주]스맥, 미국·유럽서 불티난 공장기계 ... "AI 엣지 로봇으로 성장 지속"

●**공구우먼 (+9.23%)(4138K)**

(24.04.19)공구우먼, VC 엑시트 '임박'...M&A 가시화 전망

(23.06.20)특징주]공구우먼, 미중 관계 개선 기대에 중국 직진출 사업 부각 '강세'

공구우먼은 플러스사이즈 여성을 타겟으로 여러 브랜드를 보유 중인 의류 업체다. 중간 유통상 없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Direct to Customer) 형태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현재 중국, 일본, 대만, 미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가별 자사몰을 운영 중이다. 중국 티몰(Tmall), 타오바오글로벌 등에 입점해 판매도 하고 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를 통해 현지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다.

●**파이버프로 (+8.23%)(6662K)**

[특징주]파이버프로, 관성측정기 독보적 지위 입증...방산·AI·우주로 '무한확장'

파이버프로는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179억원 규모의 OO급 관성측정기 수출용 소요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92.3%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6년 7월10일까지다. 계약 상세내용은 방위산업 보안관계상 기재를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84%)(1197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영업이익 374억원...작년 대비 83.2%↓(종합)

📄 2024.04.30.(화) 한 장으로 보는 이브닝

▲ 코스피 2,692.06 (+0.17%)

▼ 코스닥 868.93 (-0.09%)

“1분기 외국인 관광객 340만명, 팬데믹 후 최다...
화장품 관련주 강세”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8.72%)
아모레G (+4.02%)
토니모리 (+12.86%)
한국화장품 (+9.63%)
클리오 (+8.53%)
본느 (+7.85%)
선진뷰티사이언스 (+7.11%)
빼아 (+30.00%) ▲
마녀공장 (+18.71%)
제이투케이바이오 (+12.38%)
뷰티스킨 (+10.32%)

자동차/이차전자

슈어소프트테크 (+18.89%)
라이콤 (+11.82%)
퓨런티어 (+8.07%)
라닉스 (+6.64%)
모바일어플라이언스 (+6.18%)
제일엠앤에스 (+22.73%)

에너지

삼화전기 (+19.27%)
삼화전자 (+7.97%)
고려제강 (+17.27%)
KBI메탈 (+14.41%)
LS에코에너지 (+11.60%)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1.04%)
한양디지텍 (+7.42%)
코아시아 (+10.90%)
파두 (-4.83%)
선익시스템 (+12.45%)
아바코 (+3.92%)

BIO/의료시

카이노스메드 (+19.40%)
네오이문텍 (+12.68%)
압타바이오 (+9.66%)
아이엠비디엑스 (+7.47%)
제이엘케이 (+16.98%)

개별주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29.79%) ▲
스맥 (+15.50%)
공구우먼 (+9.23%)
파이버프로 (+8.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84%)

